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577
----------	------

박삼례.고양석.전은혜
박순복.김미영.김희근
문경숙.이명옥.장길천
박성연.이경호.안문환
추윤구.장경희의원(14인)

1. 주 문

별첨 “건의문” 과 같음(건의문 첨부)

2. 제안이유

가. 우리나라의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 문제로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표준보육료에 못 미치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

나.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은 보육료는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임.

다. 이에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을 기대하는 간절함을 담아
영유아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를 건의함.

3. 건 의 문 : 붙 임

4. 건 의 처 :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영유아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국가책임보육”을 외치는 정부의지의 입법적 표현이자 국민을 향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현상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극심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8시간 기준 “표준 보육비용” 제측 결과를 보면 0세반 1,017천원부터 5세반 396천원까지로 3년 전보다 연령별로 20% 안팎으로 인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누리과정의 유아(3~5세) 보육료가 7년째 동결 상태이며, 어린이집 최소 1일 급식비의 경우 1,745원으로 책정된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다는 것이 정부 지원의 현실인 것이다. 결국 “제측 따로, 예산 따로”인 셈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책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영유아의 급간식비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체 현상은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악영향을 끼쳐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그 피해는 결국 영유아에게 돌아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와 양질의 급간식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할 때 이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렇듯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만을 강요하고 있는 정부의 보육정책에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영유아의 권익보장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란다.

이에 광진구의회는 “국가책임보육”이 언어유희가 아닌 현실 속의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을 기대하는 간절함을 담아 영유아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보육료를 현실화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육교직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한 “국가책임보육”의 책무를 철저히 이행하라.

2019. 10.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일동